

‘경로효친과 마을화합을 위한 100세 잔치 지속 추진’

고창군 아산면 주민마을, 이만예 어르신 마을잔치... 이웃 사랑 넘쳐

고창군이 최근 아산면 주민마을에서 100세 어르신 마을 잔치를 열었다. 올해 3번째로 열린 마을 잔치에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흥과 정이 넘치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올해 100세를 맞으신 아산면 주민마을 이만예 어르신과 가족들은 무더위에 함께하는 이웃들과 손님들이 고생에 격정이 앞섰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가족처럼 지낸 이웃들은 내일처럼 앞장서서 잔치를 함께 해주면서 흥과 정이 넘치는 잔치가 됐다.

경로당에서 매일 보는 어린동생 금동맥, 집앞에서 보는 광주대, 항상 밝고 내일처럼 도와주는 밭집이 엄마 등 자기 일처럼 손님들 상을 차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알에서 국, 짜개를 도맡아 도와준 덕분에 더위를 잊고 잔치를 즐겼다.

이만예 할머니는 “모이기 힘든 자식들, 손자들, 동네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까지 나를 축하 해주니 같이 즐거워 해주니 마치 꿈만 같다”며 활짝 웃었다.

35년동안 함께 살아온 큰아들 장성균(62), 임춘자(61) 부부는 “혼자 6남매를 억척같이 키우시고 100세에도 건강하신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의 나눔과 재능기부가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고창군시남총합회, 판소리보존회, 노인복지회관 한국무용단원이 재능기부로 흥을 돋웠고, 대보건축사 대표 전영



고창군이 최근 아산면 주민마을에서 이만예 어르신의 100세 마을 잔치를 열었다.

배)에서는 100세 잔치를 위해 마을에 성금을 기탁했다.

고인돌꽃집에서는 100세를 살아오신 어르신과 며느리에게 축하의 꽃목걸이를, 고창군 한자공예 유은숙 작가는 한지 꽃단지를 전달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잔치가 이어질수록 기부와 나눔이 커져 고창군에 긍정의 기운이 전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과 마을화합을 위한 100세 잔치를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보건교사회, 흡연예방금연캠페인 실시

전북보건교사회(회장 김은애,군산중앙중학교)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학생들을 위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고 밝혔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군산경찰서와 함께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학교’ ‘금연 100% 백세인생’ ‘꿈 사랑, 자존감 사랑 UP’이라는 여러 가지 소재로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며, 청소년의 남치는 끼와 에너지가 선한 방향으로 발산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군산중앙중 학생들과 학부모, 군산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학교 전달 경찰 등이 학부모와 함께 경찰 체험을 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박미금 담당자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함께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과 경찰학교 체험 및 금연공동캠페인을 벌여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제5회 완주로컬푸드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성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완주에 모였다. 15일 완주군은 제5회 완주로컬푸드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지난 주말인 13일부터 14까지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대회에는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 600팀이 참가해 즐거운 경쟁을 벌였다. 윤여연 완주군 배드민턴협회장은 “전국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에게 완주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국대회 중 으뜸 배드민턴 대회로 자리매김 하는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 완주에 부합하는 전국 으뜸 생활체육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시설투자 및 체육활성화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에는 삼례초등학교 강당에서 ‘2019 삼례문화예술축제 배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대회에는 관내 11개팀 120명이 참석 지역대항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비전대, 해외취업 위한 일본 산업체 탐방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동안 청해진대사업 K-MOVE스쿨과정 연수생 15명을 대상으로 일본 나고야에서 산업체를 탐방하는 2019년 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19년 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청해진대사업(K-MOVE스쿨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외취업을 위한 산업체·기술·문화 탐방 및 현지 취업 선배들과 소통의 장 마련등으로 기획됐다.

탐방단은 △ 16일 Bryza(주) 취업선배와의 좌담회 및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 견학 △ 17일 POSCO Japan PC(주) 공장 견학 및 문화 탐방 △ 18일 (주)화이트하우스 계열사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청해진대사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대학 재학 중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현재 총 4개의 일본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15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전주비전대 청해진대사업단 박경민 단장(자동차과 교수)은 “이번 산업체 탐방이 연수생들에게 해외 취업 동기부여 및 진로 방향 구체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 남원고 앞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최근 남원고 앞 회전교차로에서 남원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피켓팅 활동과 운전자들에게 진로변경 시 깜빡이 켜기,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동부지부, 조우심리상담센터와 후원금 전달식

굿네이버스 전북동부지부(지부장 김수경)는 15일 조우심리상담센터(소장 이선미)와 국내 학대피해가정 및 빈곤가정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조우심리상담센터는 굿네이버스 전북동부지부에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학대피해 가정 아동과 빈곤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의복 등의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선미 소장은 “이번 후원금이 국내 학대피해가정 및 빈곤가정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 내방

▲박석일 완산경찰서장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명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